

光日春秋

여기는 땐 나라 같다

김용택
시인

앞산 산 밑에 농마을 짓고 사는 사촌 동생 복두가 서울에서 가져온 누룽지 가져가라고 전화 왔다. 복두는 나보다 한 살 아래,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같은 반이었다. 서울에서 살다가 몇 해 전 앞산 밭에 농마을 짓고 이따금 와서 기거한다. 밤이 되어 앞산 밭 강 언덕에 불이 켜지면 산이 눈을 뜨는 것 같다. 이따금 배호의 '돌아가는 산가지'를 크게 틀어 놓는다.

아침밥 먹었는데, 앞집에서 복국 끓여 놓았다고 먹으러 오란다. 복국 먹고 있는데, 복두가 누룽지 가져가라고 또 전화한다. 강을 건너갔다. 눈이 날린다. 눈밭이 몇 개 얼굴에 차다. 걷정비닐 봉지에 든 누룽지를 들고 타박타박 강을 건너왔다. 오리들이 강에서 놀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며칠 사이에 청동오리들이 많이도 불어났다. 금 새 100마리도 더 떼를 지어 하루 종일 마을 앞 강에서 먹이를 찾아 먹고 바위 위에 앉아 머리를 날개 위에 꼬아 엉어 놓고 한 발로 서서 쉰다. 오리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머리를 강물 속에 저박고 궁덩이와 노란 밭을 허공

속에 벼농거리는 모습은 매우 웃기고 아주 평화로워 보인다.

오리는 힘들겠지만, 나는 그렇다. 강물 속에는 봄 여름 기울까지 자란 디슬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오리는 디슬기를 까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책을 보고 있는데(나는 요즘 유발 하라리의 '21세기 스물한 가지 제언'을 읽고 '넥서스'를 읽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의 저서인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다시 읽어야겠다고 벼른다.) 앞집에서 또 방에 회 먹자고 해서 양껏 배부르게 먹었다.

이틀 전에 김강 마을을 갔다. 오늘은 파를 다듬었다. 해는 지고 어두운데 땅이 순창 읍내로 치킨 사려 가지고 한다. 날이 추웠다. 달리는 차창에 눈밭이 날아왔다. 닭집 앞에 차를 세우고 치킨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닭집 훌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퇴근 후 사람들이 한가하게 술을 마시는 풍경을 정말 오랜만에 보았다. 함께 평화롭고 서로 다정하고 여벗이 정다워 보인다.

읍내, 그러면 어쩐지 정답다. 정다운 모습들을 치킨이 나올 때까지 차 안에서 바라보았다. 무어라 심각하게 말하고, 또 허리를 뒤로 세우고 웃고, 손뼉을 치며 모두 웃는다. 삶의 내일이 불안하고, 또 기다려진다. 큰 도시 삶같이 어마어마한 희망은 없을 것 같은 간소한 음내의 하루가 이렇게 눈밭 속에 잡혀 있다.

집이 있고, 집에는 식구들이 기다린다. 그것 또한 삶의, 하루의 안심이다.

닭집 여자 주인이 닭을 가지고 온다. 얼른 차창을 열고 받았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치킨집 여자 사장님이나를 보더니, "어머! 사인, 그분 아니세요" 한다. 내가 "네 맞다"고 했다. 좋아하셨다. 땅이 운전하면서 아빠가 그분이구나 했다. 웃었다. 눈밭이 아까보다 세차졌다.

순창에서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때 우리 모두 가난하고 가난하였다. 자취하는 나를 도와준 친구가 둘 있었다. 종해와 운행이다. 종해는 어머니와 누님하고 살았다. 추운 겨울 자기 집에 데려가 이불 속에 묻어 놓은 따듯한 밥을 주었고, 운행이는 시계 집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내내 소풍 때마다 도시락을 싸 왔다. 운행이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나를 데려갔다. 고운 얼굴의 운행이 어머님이 나더러 "니가, 용택이구나" 하며 나를 바라보며 웃으셨다.

나의 생활권은 지금도 순창이다. 시장을 보러, 마트에 무언인가를 사러 가고, 칫집도 외식도 병원도 순창으로 간다. 내 삶의 일상은 모두 순창으로 해결된다. 집에 일이 없는 날은 아내는 책을 보러 순창에 간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어쩐지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 스친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살며 눈에 익었던 그 이들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어찌나 스친 그 때 읍내에 살던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후손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이 작은 고을은 일상은 딴 나라 같다. 닭튀김은 맛이 있다. 격동의 1년이 가고 있다.

종교칼럼

신성(信誠)에 대하여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믿음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신성의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 도가(道家)에서는 신성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신성이라 믿음과 정성의 합성어로써 '믿는 정성', '믿음에 대한 정성', '믿고 바치는 정성', '정성을 다하여 믿는 마음' 등으로 풀어 할 수 있다. 원불교에서는 신(信)·분(忿)·의(疑)·성(誠)의 합성어로 준말로 서의 신성이다.

이 마음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라 했다. 만일 신성이 부실하면 법을 담아가지 못하고, 의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율을 지키지도 못하는 결과를 빚는다.

이를 더 부연하자면 원불교 교리는 인생의 요도(要道)와 공부의 요도, 두 맥락이 있는데 이중 '공부의 요도'에 삼학(三學)과 팔조(八條)가 있다. 삼학이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공부를 말하고, 팔조란 전행사조(進行四條: 진행해야 할 네 가지)와 사연사조(捨捐四條: 버려야 할 네 가지)를 말한다.

기고

대통령의 '응급실 빙 빙' 대책은 무엇인가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현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 길 위에서 국민이 죽어 가고 있다.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데, 장관은 "광역 상황실을 만들어 이송을 조정하겠다", "순환 당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이 "과거에는 병원에 거부를 못했는데 지금은 '역량이 안 된다'며 거부한다"라고 묻는데, 이미 실패가 증명된 '컨트롤타워' 타령이란다. 응급실 빙 빙은 전화 연결이 안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를 받아줄 '공간'과 '의사'가 전멸했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애써 외면하는,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에게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말하지 못할까?

대통령이, 국민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 했던, 아니 반드시 들었어야 했던 얘기를 끝내 입에 올리지 못하는 걸 보면 참 답답했다.

대통령은 "왜 환자를 안 받아주느냐"라고 사태의 원인을 묻는데, 장관은 원인에 대한 답변 없이 그냥 환자를 잘 배분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다. 응급실 빙 빙은 '환자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의 불과에서 기인한다. 받아줄 곳이 없는데 아무리 정교한 배

분 시스템을 도입한들 무슨 소용일까?

그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후 진료 인프라가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응급실과 배후 진료과에 의사가 없는 것은 환자를 받았다가 발생할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의사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한다. 만약 실패하면 '죄인'으로 만든다. 과거 필자가 수련받을 때는 의료진들은 "일단 환자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약전병원식의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환자나 보호자도 의사의 '선한 의지'를 믿었다. 그러나 지금 의사들은 "살릴 확률이 100%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라는 생존 본능으로 무장했다.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했을까? 사법 리스크다.

한국에서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될 확률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에 달한다. 1%의 사망 확률이 있는 위급 환자를 수술하다 결과가 나쁘면 검찰과 법원은 "왜 그 1%를 막지 못했느냐"라며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제정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이는 장면은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환자를 받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 안 받고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관료들이 이를 모를까? 다만 그다음에 '광역 상황실'이 무슨 소용인가? 상황실 직원이 전화하면 없던 수술방도 생기고 퇴근한 의사가 돌아오나?

응급실은 병원에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국민은 응급실에 의사만 있으면 되는 줄 안다. 좁각이다. 응급의

학과 의사들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터진 뇌혈관을 잊고 막힌 심장을 뚫는 건 배후 진료를 맡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장내과 의사이다. 지금의 빙 빙이는 실상 응급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배후 진료 의사가 없어서 발생한다. 지방은 사정이 더욱 심하다.

정원을 늘리거나 지방에 공공의대를 만들면 해결될까? '생명값' 보다 '미용값'을 더 쳐주는 기형적인 수가 구조를 방지한 상황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위험을 피해 미용·성형 시장으로 흘러가 밀 빠진 독에 물 붕기 될 것이다.

일각에서 응급실 수용 의무화를 강제하자고 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는 고에 강제한다고 해결될까? 이제 미국 텍사스주처럼 '고의나 중대한 과실(술 취한 상태 등)'이 아니면 응급 의료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 면책이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다. 응급실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거나 국가가 보상하는(응급의료를 개인의 희생에 맡기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는 신의 영역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도 환자는 사망할 수 있다. 그 결과에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환자 결에서 위험을 감수할 의사의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응급실 빙 빙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다. 대통령의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해법은 올바른 정책을 시행할 의지와 결단이다. 이제 미봉책은 걷어치우고 해법이 무엇인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社說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속도전이 부른 참사

4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공기(공사 기한)를 맞추기 위한 속도전으로 확인되고 있다.

감리회사가 공사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보고서'를 보면 부진한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이른바 '돌관작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감리 측은 작업시간 연장 및 휴일작업 실시, 미감공사시 병행공정 동시 투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는데 촉박한 공기를 맞추려고 실제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짧은 시간에 연속 처리했다. 공동 시공사 부도로 현장대리인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했고 미숙련 인력을 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붕괴 참사의 원인이나 경찰 수사로 최종 확인되겠지만 무리한 속도전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속도를 높이기 위한 무

리한 작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붕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발주처인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속도전을 부추겼다는 데 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한 달 사이 다섯 차례나 준공기한을 지켜달라고 독촉했는데 은인 시공사 입장에선 부담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공공발주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참사의 충격이 더 크다. 현장은 점검하지 않고 결정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흔들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참사도 탁상행정이 한 원인이다. 광주시나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멀지 않은 현장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공동 시공사 부도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이 빚어졌는데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 더 꼼꼼하게 점검했다면 어땠을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이번 참사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붕괴 사고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것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참사를 예방하는 길이다.

전남 국립의대 품고 통합하는 목포대·순천대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으로 탄생하게 될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점이 운운을 드러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두 대학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 국립의대 개교 목표를 2027년 3월로 잡고 정원을 100명 이상 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의 공개적인 발언인 만큼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30년으로 밝혀왔는데 김 실장이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과의 회동 자리에서 구체적인 시기와 정원 규모를 언급해 해석하기로 했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은 단순히 '한 지역 두 가족'의 의미 이상이다. 전남권 국립의대를 품고 출범하는 만큼 거점 국립 대로 위상도 커진다. 전남 동·서부권에 각각 500명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갖춘 대학병원이 들어서게 돼 필수·공공 의료 강화로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無等鼓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다. 아름다운 운작은 어렵다. 보내는 이와 떠나는 이의 마음이 통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그 때를 잡는 게 어렵다.

뜨거운 2025시즌을 달렸던 광주FC가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초보 감독으로 시작해 많은 구단이 태내는 지도자로 우뚝 선 이정호 감독과의 작별. 떠나보내야 하는 광주FC 입장에서는 진한 미련이 남는다. 이정호 감독은 '정효불'로 야구 도시 광주에 축구 바람을 일으킨 특별한 존재다. 기준의 틀을 깨는 거

침 없는 언행으로 회제를 몰고 다니는 인물이 기도하다. "최고의 예우를 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불잡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떠나야 하는 이정호 감독의 마음도 알 것 같다. 감독 첫 해 최다 승점으로 최단기간 K리그2 우승을 이뤄냈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8강전도 연출했다. 지난해 코리아컵 첫 4강에 이어 올해는 준우승이라는 결과도 만들었다. 선수들의 출부상과 이탈에 FIFa 연대 기여금 미납, 재정건전화 위반 등 행정적인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

서 모든 성과다. 광주FC의 첫 기록을 연달아 쓰면서 정점에 선 이정호 감독. 그는 승리한 날에도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이야기하던 지도자다. 성장과 도전을 강조하던 그에게 광주FC는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팀일 것이다. 이정호 감독에게는 떠나기 가장 좋은 때다. 이미 작별 사인을 내기도 했었다. 어떤 결과에도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던 그는 흠페막전에서는 말을 아꼈다. '코리아컵 우승' 목표가 남아 있는 만큼 걸 끝낸 뒤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던 그의 이야기.

우승컵을 앞에 놓고 4년을 돌아보면서 작별을 고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쉽게도 그는 결승전에서 퇴장을 당했다. 퇴장 선수와 지도자는 현장에서 공식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예상 이상으로 치열했던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한 감독의 전술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놓쳤다. 광주FC와 이정호 감독의 빛났던 동행이 박수 속에서 마무리되길 바란다. /김여울 디지털·체육부장 wooll@

光州日報

| | | |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
|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경 영 지 원 국 220-05 | | |